

입주 기업 242개 ... 한전 효과 '톡톡'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올 상반기 69곳 등 총 242개 기업이 이전에 전국적으로 입주 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국 10곳 중 두 번째 많아 ... 올 1분기 32·2분기 37곳 입주 수도권서 이전한 기업 9개 ... 분양률도 81.9%로 전국 3위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 수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10개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실적'에 따르면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총 242개로,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은 9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총 1017개로 광주-전남 실적은 경남(355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총 17개 업체 가운데 광주-전남은 절반이 넘는 9개를 기록했다.

올해 분기별로 보면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1분기 32곳, 2분기 37곳으로 소폭이나마 늘고 있는 추세다. 2분기 입주한 37개 기업 가운데 산학연 클러스터 안에 입주한 곳은 25곳, 클러스터 밖에 입주한 곳은 12곳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입주한 기업을 업종별로 나누면 대부분 전기·지식산업 분야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242곳 가운데 지식산업 분야가 126개로 가장 많았고 전기분야(83개), 기타제조 분야(32개), 대학·연구소(1개)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남과 광주-전남 지역 혁신도시 입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광주-전남은 한국전력관련 연관기업 이전이 늘면서 증가폭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기업 이전과는 별개로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무협약(MOU) 체결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 중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71.4%에 해당하는 15개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한국전력과 협약을 맺은 곳으로, 서울·경기·인천·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에너지·신산업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유망 중소기업을 혁신도시로 유치하려는 지자체 등의 노력도 계속됐다.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등은 지난 4월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어 일대 일 상담 등을 진행했고, 같은 달 10개 기업과 투자유치 간담회를 열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해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반면 올 2분기 혁신도시별 클러스터 용지 분양은 담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분양률은 6월 말 현재 81.9%(41만5000㎡ 중 34만㎡)로, 경남(94.9%)·제주(86.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이는 1분기 분양률과 같았다. 현재까지 전국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배정된 용지 가운데 분양된 면적은 199만㎡로, 계획(312만4000㎡) 대비 63.7% 수준이다.

나주 혁신도시 기업 입주 면적은 6만㎡로 입주를 역시 1분기와 같은 17.6%이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올 상반기 69곳 등 총 242개 기업이 이전에 전국적으로 입주 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올 상반기 69곳 등 총 242개 기업이 이전에 전국적으로 입주 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전KDN '찾아가는 전력ICT 특강'

전남대·조선대 등 9차례 교육 ... 하반기 대상 확대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기업인 한전KDN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력ICT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KDN은 다음 달부터 지역 대학생 뿐만 아니라 주민과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상반기 동안 한전KDN은 전남대·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9차례에 걸쳐 교육을 펼쳐왔다.

하반기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역 대학 8곳과 나주시청, 한

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이다. 참가자들은 정보보호, IT개발·운영, 송배전계통, 배전기술, 에너지신기술 전력정보통신 실습, 지역주민을 위한 컴퓨터스마트기기 사용법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수업은 1회당 1~2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기획해 전력ICT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로컬푸드는 OO이다" 한줄 생각 완성하세요

aT, 설문조사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하 공사)가 산지 직거래 농산물을 뜻하는 '로컬푸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14일까지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이나 바로정보(baroinfo.com) 사이트를 통해 키워드(핵심어) 설문조사를 벌인다.

로컬푸드에 대한 20가지 키워드 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로컬푸드 핵심어를 3개 선택하고, 선택한 키워드로 '로컬푸드는 OO이다'라는 한줄 생각을 완성하

면 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의 하나이다. 공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로컬푸드 가치 확산' 홍보 문구를 만들 계획이다.

참가자 가운데 추첨된 50명에게는 로컬푸드 꾸러미 상품이 주어진다.

정성남 공사 유통이사는 "떡거리에 있어서 국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가까이에서 이런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농가 온실가스 매년 1만t 줄인다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년 1만t의 농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농어촌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은 올해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상·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열히트펌프, 순환식 수막재배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설을 도입한 농가에게 공사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중부발전이 인증된 감축량만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와 중부발전은 매년 1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가에게는 총 2억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석화 화훼유통센터에서 남사작목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인이 사업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후 사업승인, 감축량 검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감축 실적만큼 수익을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공사 환경사업처(061-338-5821)로 문의하면 된다.

농어촌공사는 "첫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원예농가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생산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생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사업지원 내용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며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사과 '썸머킹' 수도권 15개 매장 판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하 공사) 사과품종의 하나인 '썸머킹'의 판매처를 발굴했다. 공사 사이버거래소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의 '효 사과원'이 생산한 사과 3t을 수도권 15개 매장에 팔 수 있도록 농가와 판매업체를 직접 연결해줬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사이버거래소 직원들은 농부가 일손 돕기를 진행하던 중 판로에 대한 농가의 고민을

들고 연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판로를 찾은 '썸머킹' 사과는 해외 품종인 '아오리'와 달리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순수 국산품종이다.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은 것이 특징이다.

공사 사이버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산자와 유통업체에게 모두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얼굴

"사회적 공기 역할 수행위해 변화·개혁 필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농촌·식품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김홍상(58) 15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지난 12일 나주 혁신도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

김 신임 원장은 "연구원은 그동안 농업·농촌·식품산업 전반에서 의제 발굴, 정책 개발 등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왔지만, 근래 사회적 공기(公器)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외부의 비판도 있다"며 "농정 틀의 근본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 역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진주고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4년 대통령 자문 농어촌발전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에 입사해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평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활동과 농업정책연구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서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